

# 하와이 거주 일계인의 에스닉 산업 전개와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임 영 언\*\*·김 태 영\*\*\*

(e-mail: yimye@hanmail.net · taeyoung@gwnu.ac.kr)

---

## 目 次

---

- I. 연구 목적
  - II.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III. 일본인 이주자 증가에 의한 경제공동체의 출현과 에스닉 산업의 전개
  - IV. 일본인의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과 현지 정착
  - V. 결론 및 시사점
- 

## I. 연구 목적

일본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 중 일계인들은 중국인, 재일코리안, 다음으로 많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브라질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배일이민법'이 시작된 1908년 이후이다.<sup>1)</sup> 일본인의 이민역사도 2008년을 기점으로 100주년을 넘어섰다. 1970년대 중반까지 일본인들이 브라질로 이주한 숫자는 대략 150만 명 정도이며 이들 중 약 30만 명 정도가 1990년 일본정부의 이민법 개정 이후 재이주하여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일계인들이 정착한 일본 도시는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군마 현 오이즈미마치, 시즈오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2013S1A5B8A01055017).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제1저자).

\*\*\*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일본학과 교수(교신저자).

1) 일본에서 '일계인(日系人)'의 정의는 일본이외의 해외지역에 이주한 후 거주하는 해당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 및 그 자손을 지칭한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면서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체류 중인 일본인 장단기 체류자를 지칭하여 '재외방인'이라고 부르고 있음.

카 현 하마마츠시, 아이치 현 나고야시, 아이치 현 도요타시 등으로 이들 중 오이즈미마치는 전체 인구 4만 4천 명 중 일계인들이 4,600명을 차지하여 전체 인구 10%가 외국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계인들의 일본 유입형태는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유팀(U-turn) 현상이나 데카세기(‘일정기간 모국(고향, 집)을 떠나 외국(타향)에서 돈을 벌다.’라는 뜻의 일본어)로 도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일계인의 귀환에 따른 데카세기 붐의 본격적인 시대로 일본에서 일계인 노동자들에 의해 브라질로의 해외송금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키워드가 일계브라질인들의 해외송금이였다. 또한 일본에서 일계인 에스닉기업이나 브라질학교의 출현이 본격화되면서 일본현지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등 기존의 데카세기 개념에서 정주를 지향하는 이민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일계인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참가한 브라질엑스포(EXPO)가 일본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최근 일계브라질인들은 대개 일본생활이나 거주 편의를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브라질이주 10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1988년부터 일계인의 유팀(U-turn)과 데카세기가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리먼쇼크(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로 일본으로 이주한 약 8만 명이 브라질로 재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당시 귀환일계인들은 일본정부가 일계인 귀국 보조금 명목으로 13억을 책정하여 일계인 1인당 30만 엔, 가족수당 20만 엔을 지급하고 당분간 재입국을 제한한다는 조치 하에 귀국을 종용받았다. 그 배경에는 당시 일본에서 2008년 리먼쇼크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소수민족은 일계인들이었으며 줄지에 실업자가 된 일계인들이 교육과 직업의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일본 전국적으로 벌려 사회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었다.

글로벌시대 2010년 이후 일계브라질인들은 물론 브라질인들이 전 세계의 일계인네트워크를 통해 진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 일계인디아스포라들은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정치적 권리운동, 미디어, 문화, 사업관련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여 일본이나 미국거주 일계인들이 보스턴에서 정치적인 행사를 통해 만남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의 네트워크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초 일본인의 하와이 초기 이주과정을 살펴봄으로서 그들의 하와이 현지이주나 정착과정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틈새산업으로서 에스닉 산업의 전개과정과 공동체 형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달성하고 정부주도의 관약이민

자를 해외로 파견하기 시작한 당시 일본정부의 이민전략이나 일본인의 현지 정착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과거와 현재를 가늠하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일본인의 해외이주는 1866년부터 막부가 해외도항자에게 여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 인장을 교부하면서 주로 유학생이나 외국인에게 고용된 노동자들이 해외로 건너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1868년 메이지시대 미국인 반리드가 메이지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153명을 하와이로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막부의 해외도항 인장교부를 환영한 것은 일본인들이 아니라 당시 미국과의 불평등조약으로 ‘치외법권’ 조항에 보호되어 개항장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들이었다. 그들은 중국의 쿨리와 같이 일본인노동자를 대거 모집하여 해외로 송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고 중국의 쿨리무역을 사례로 교훈삼아 1885년 관약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이민노동자의 송출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1868년 이후 하와이 이주 일본인을 이주시기별로 구분하면 초기 일본인 1세 중심시대, 일본인 2세 중심의 일계시민 시대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하면 초기 일본인시대를 3기, 일계시민 시대를 2기로 구분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1> 일본인의 하와이 현지정착과 시대별 유형

일본인 세대별 구분	하와이 정착유형 시대별 구분
초기 일본인 시대 (일본으로부터 도항한 제1세 시대)	① 데카세기 시대-1885년부터 1907년까지 22년간 ② 정주시대-1908년부터 1924년까지 17년간 ③ 영주자 정착시대-1924년 이후
일계시민 시대 (하와이에서 출생하여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제2세 시대)	① 교육진흥시대-1913년부터 1927년까지 15년간 ② 정계진출시대-1928년 이후

데카세기 이민시대는 일본인들이 관약(官約)이민<sup>2)</sup>, 사약(私約)이민<sup>3)</sup>, 자유이

2) 관약이민은 188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3년간의 노동계약으로 1개월에 26일 동안 일하고 임금으로 12달러 50센트를 받는 조건의 데카세기 이민이었음.

민4) 등 세 종류의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하와이로 도항하던 시대로 이민자들의 입국, 귀국, 미국대륙진출 등에 의해 출입이나 이동이 빈번하던 시기였다. 1906년에는 하와이로부터 미국대륙으로의 일본인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샌프란시스코 거리에 일본인 이민자들이 넘쳐나면서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대량 유입되자 캘리포니아주에서 갑자기 배일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0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구도시였던 상항(桑港)에서 일본인학동격리사건이 발생하면서 하와이 거주 일본인의 미국대륙도항금지 조치로 1908년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자발적으로 일본인들의 하와이 도항을 금지시켰다. 더 나아가 1908년 미국과 일본 간 이민, 경제, 기타 사항에 관한紳사협정(Gentleman Agreement)이 체결되어 하와이 거주 일본인의 가족, 재도항자, 사진결혼자, 전문가 및 여행자를 제외한 모든 일본인들의 하와이 도항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에 이르렀다.5)

이 논문은 일본인의 이주과정과 공동체 형성과정에 대하여 자원동원이론에 의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산이라는 고통 속에서 일본을 떠나 하와이에 정착한 일본인들이 어떻게 현지에 적응하고 정착하게 되었는가? 이주와 더불어 하와이 현지정착 과정에서 개별 인적자본(교육이나 기술)과 경제자본은 물론이고 사회적 자본(네트워크)과 문화자본이 일체인 공동체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브라질 일본인(일계인)에 관한 최근 연구는 임영언(2010, 2011)의 연구가 있다. 연구의 중심내용은 1990년대 이후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일계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결과이다. 또한 송석원(2009)의 기존연구는 일본정부의 해외 일본인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1868년 하와이로 이주한 일본인들의 이주과정과 공동체형성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글로벌시대 사람의 이동과 이주과정에서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3) 관영이민 취급에 의한 ‘관약이민’은 1894년 6월 13일 폐지되어 사립이민회사 취급의 이민도항이 시작되었다. 일본정부는 1892년 4월 이민회사 감독 및 이민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민회사의 설립을 허가하였음.

4) 1900년 이후에는 오로지 자유계약의 이민자가 도항한 시대로 이 무렵을 ‘자유이민시대’로 부르고 있음.

5) 1908년 미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 일반관광객이나 학생 등 이외의 일본인에게 미국행 여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일본정부의 약속, 학동격리사건이 발단이 되어 재미일본인의 배일여론에 대한 항의 활동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하여 하와이 등으로부터 도항이민이 금지되고 일본으로부터 도미자가 대폭 제한되었으며 미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수는 거의 고정되었다. 일본정부의 여권 발행 예외자로서 미국체류 가족을 가진 자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형제나 처자가 있으면 가족 초청이 가능했으며 이에 따라 ‘사진결혼’이 고안되어 이후 일본인 여성의 도항자가 증가하게 되었음.

이주민의 기술이나 교육수준이 현지 정착과 취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다. 이후 베커나 민서(Becker, 1975; Mincer, 1993)의 인적자본에 관한 연구성과는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이주자일수록 생산성이 높고 이주 현지 노동시장에서 좋은 직업의 선택과 전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왔다. 인적자본은 이주지에서 이주자들의 고용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주자들은 개인적 평판, 이민자 네트워크, 높은 교육수준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초기 개척 이민시대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은 기존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들은 개인의 인적자본을 통한 취업보다는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경험을 살려 일본인의 촌락과 마을공동체 단위의 일본인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인적자본과는 달리 사회적 자본은 이주자들의 개별 인적자본보다는 그들 사이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더욱 중시하기 때문이다.

퍼트남(Putnam, 1995)은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개인들 사이의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 등을 중요 구성요소로 포함시켰다. 사회적 자본은 이주자들의 행동과 공동체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이주자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현지에서의 정보입수와 자원획득을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은 이민을 결정하게 될 때 현지 이주지에 알고 지내는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주시스템은 연쇄이동(Chain Migration)을 유발시킨다는 이론이다.<sup>6)</sup> 따라서 이주민네트워크는 이주민의 이동이나 취업 등 현지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사회적 자본은 이주민 집단의 특정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들 구성요소는 가족, 친척, 친구, 지역사회, 직장동료, 그리고 이주국에서의 인맥들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아길레라와 마세(Aguilera & Masse, 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이주민의 현지적응(동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주민의 현지적응이나 정착과정에서 친척이나 친구 등 사회적 자본이 현지사회의 적응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성과는 한

6) 김태영(2013) 「에스닉 마이너리티의 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기업정신에 관한 실증적 연구」 『日本文化學報』 第27권, pp.317-338참조.

국사회의 여성결혼 이민자의 문화적응 연구에도 적용되어 왔다.

장지혜·설동훈(2006)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 만족도’ 라는 연구에서 여성결혼자들의 생활 만족도와 현지적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 가족과의 유대관계 형성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출신국인 모국 가족과의 연결망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콜만(Coleman, 1988)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구조가 폐쇄적일수록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이 용이하다고 보는 ‘강한 연대(Strong Ties)’의 이민네트워크가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7)</sup>

이상의 기존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이민자들 역시 초기 현지적응 과정에서 인적자본이나 경제자본(특새산업의 발견과 에스닉 산업의 성장)을 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현지정착과정에서는 사회적 자본(네트워크)과 문화자본(가치관과 모국공헌)이 이주민공동체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sup>8)</sup>

### Ⅲ. 일본인 이주자 증가에 의한 경제공동체 출현과 에스닉 산업의 전개

#### 1. 일본인의 하와이 이주와 일본인 사회의 형성

하와이 거주 일본인들은 메이지유신(1868)이전까지는 표류자가 잠시 체류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메이지 원년에 153명의 이민자가 도항하여 일제인 2세의 조상이 되었다. 하와이에는 가장 먼저 중국인 쿨리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폴리네시아인, 일본인들 순으로 다양한 인종들이 유입되었다. 하와이에 일본인들이 유입되면서 가장 먼저 발달한 산업은 제당산업이었다.

이후 잠깐 동안 일본인 이민자들의 유입이 드물었지만 1885년 관약이민의 정기적인 이주형태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인이민자들이 매년 증가하기 시작했다. 1897년경부터는 일본인2세의 출생과 신도항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1924년 7월 ‘배일이민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일본인 인구증가는 일제인 2세 및 3세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일본인의 자연적 증가가 본격

7) 장지혜·설동훈(2006) 「여성 결혼이민자와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85-86.

8) 임영언(2006) 『재일코리아 기업가: 창업방법과 민족네트워크』 한국학술정보

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9)</sup>

1) 하와이 일본인 사회의 변화

일본인들이 1868년 하와이로 도항하기 시작하자 1871년에는 일본과 하와이 간 조약이 체결되어 하와이 도항 희망자들에게 여권이 발급되었다. 이후 1884년에는 정부 간 이주를 허가하는 관약이민의 이주협정이 체결되어 일본인 이주자들이 폭증하였다. 이미 1893년 하와이 거주 일본인은 2만 명을 초과하였고 일본인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동맹파업이 자주 발생하자 미국정부는 배일이민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하와이에서 일본인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은 미국사회를 긴장시켰지만 동시에 그들 스스로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벗어나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표 2> 하와이거주 인종별 인구수의 변화(1939년 6월말 기준)<sup>10)11)</sup>

인종별	하와이 총인구(1939년)	시민	외국인 (미국적외)	하와이 총인구(1940년)
일본인	155,042	119,361	35,681	156,849
하와이인	22,165	22,165	-	65,291
하와이 백인 혼혈인	21,055	21,055	-	
하와이 동양인혼혈인	21,638	21,638	-	
스페인인	1,219	1,077	142	-
포르투갈인	30,708	29,281	1,427	-
푸에르토리코인	7,736	7,736	-	-
기타 백인종	67,718	66,511	1,207	115,836
필리핀인	52,430	16,949	35,481	52,148
중국인	28,601	24,573	4,028	28,809
조선인	6,738	4,462	2,276	6,761
기타 전부	941	849	92	760
합계	414,991	334,657	80,334	426,654

1924년 일본과 미국 정부 간 배일이민법 실시로 한동안 이민자들의 도항은 소강상태로 빠져들었지만 사진신부결혼이나 가족초청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었다. 그 결과 1940년 하와이 총 인구는 426,654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일본인은 156,849명이었다. 이는 하와이 총인구에서 37%에 해당되는 비율로 인종별 인구수에서 제1순위로 가장 높았다. 다음이 백인 27%, 하와이 혼혈인 15%, 필리핀인 12%, 중국인 7%, 조선인 2%정도였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9) 家仲茂(1943) 『ハワイの歴史と風土』 生活社刊 °pp.218-219 °

10) 山下草園 (1943) 『日本人のハワイ』 世界道書店 °pp.299-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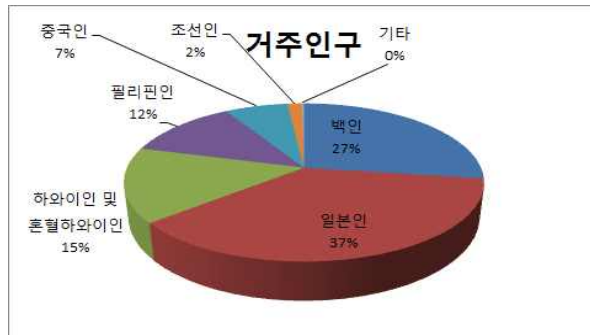
11) 앞의 책(1943), p.301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작성(1940년 6월 말 기준).

소수의 특정 계층만이 하와이로 도향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와이 거주 외국인의 인종별 인구를 살펴보면 다음 <표 2>과 같다.

하와이 일본인 사회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거주지역에서 일본인의 지위가 계속해서 상승됨에 따라 일본인 사회공동체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은 관약 및 사약이민의 계약노동을 바탕으로 한 데카세기시대로부터 자유노동의 정주시대, 독립사업으로 전환한 영주정착의 시대, 현지분위의 해외발전시대로 들어서면서 사회조직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공동체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관약이민시대에는 한 푼이라도 많은 저축을 시도하여 3년간의 계약노동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일본으로 금의환향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현지 체류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단기 데카세기시대를 거쳐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시대, 그리고 현지 정착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그림 1> 1940년대 하와이 거주 인종별 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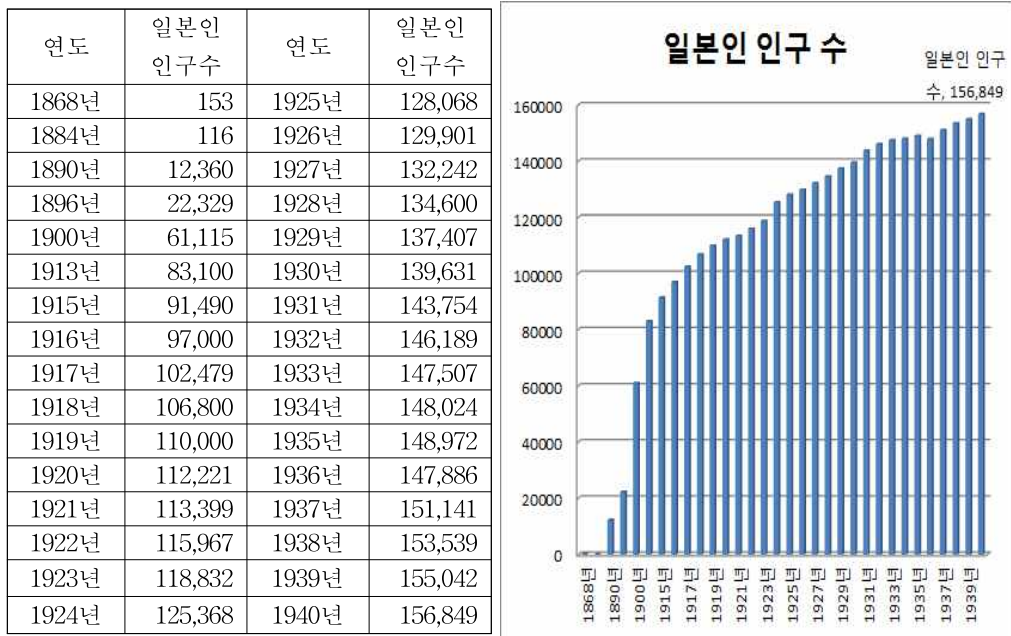
하와이의 일본인 사회는 노동자, 지식층, 상층 등 세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계인 2세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계인 1세들과 구별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국적, 환경, 교육, 사상 등에 있어서 몇 가지 상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계인 1세는 일계인 2세의 좋은 상담상대가 되거나 일계인 2세가 일계인 1세의 후원자로서 존경하거나 서로 협력하는 사회가 형성되었다. 하와이 일본인사회의 추진력은 지도자층에 있었지만 그것은 여러 방면의 지식층, 선배, 관리 등의 힘이 컸다고 생각된다. 하와이 일본인사회 단체는 공공, 언론, 실업, 교육, 종교 등 각계각층의 유력자들과 단체의 협력이 일본인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 2) 이주지의 개척과 틈새산업의 개척

일본인 이주민들은 하와이에 도착하여 산림, 언덕, 암석 투성이의 황무지를

인내와 노력으로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사탕수수, 과인애플, 커피나무, 야채류를 심어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백인들의 생활과 임금의 하락을 초래하여 백인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일본인들의 이주지에서의 개척정신이 초석이 되어 이주 초기 가난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고 경제적으로 틈새산업에서 경제적 지위를 획득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12) 이러한 일본인 이민공동체의 발전 배경에는 일본인 개개인들의 숨은 땀과 피의 산물이었다.

<표 3> 하와이 체류 일본인 인구수의 추이<sup>13)</sup>



1940년 이후 하와이 총인구는 4,206,654명으로 이들 중 일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849명(제2세 이하 12만 명 포함)으로 전체의 약 4% 정도였다. 하와이에서 일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자 일본인 공동체사회에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이민시대부터 하와이의 사탕수수경작지는 대부분 일본인 노동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주로 일본인 노동자들이 저임금노동자들을 조직하여 하와이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과 근면으로 하와이 현지에

12) 김태영(2005) 「제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특성과 기업가 정신」 『日本文化学報』 第56권, pp.317-342참조.

13) 앞의 책(1943), pp.302-303 자료를 참고로 필자작성.

서 신뢰를 구축해나가면서 일본인 공동체사회 형성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기타 과인애플사업이나 사탕수수사업 등 경작지 노동에서 성공한 일본인들은 상업이나 어업, 금융, 토목, 건축, 운송 등 모든 방면의 산업에서 하와이에서의 성장산업을 주도해나갔다. 또한 일본인 개개인의 사업성공과 더불어 대외적으로도 하와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차츰 하와이에서 유력한 일본인공동체를 건설하게 되자 그들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한 보통 노동자 수준의 영역을 넘어 숙련노동, 기술자 분야 등에 진출하였으며 각종 자영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또한 현지 일본인 2세들이 등장하면서 이민자들은 현지사회의 지배적 위치에도 진출하기 시작했다. 한때 하와이에서 표면적으로 배일감정이 분출하지 않았던 것이나 일본인 2세가 미국영토에서 거의 불가능했던 지식산업 분야, 혹은 지도자 계층에 진출하게 된 것은 일본인들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일본인 공동체사회의 양적팽창과 질적 성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2. 일본인의 틈새산업진출과 에스닉 산업의 전개

일본인들이 하와이에서 개척한 산업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940년대 하와이에 거주한 일본인 약 15만 명 가운데 약 12만 명은 일본인 3세-4세였으며 나머지 35,000여명 정도가 일본으로부터 도향한 일본인 1세들이었다. 일본인 1세들이 주로 종사하던 직업은 사탕수수농장, 과인애플농장, 커피재배업, 어업, 상업, 농업, 자동차, 토목건축 관련, 화훼, 농원, 교육, 종교 관련 사업 등 이었다. 이들 중 어업과 농업 및 화훼는 거의 대부분 일본인들의 독점사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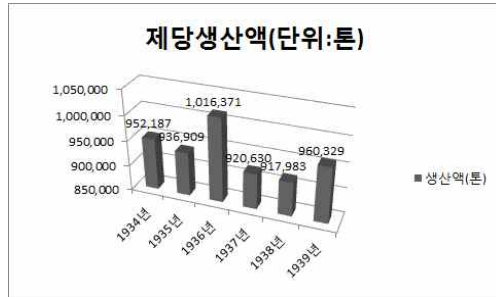
일본인 2세들은 1세들과 비교하여 노동보다는 지식사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2세들에게 주어진 교육과 생활습관의 덕분으로 일본인사회의 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였다. 그들 대부분은 각종 회사, 상회근무 등 샐러리맨들이었으며 상업이나 자동차관련 자영업자, 교직원 및 관공서로의 진출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 1) 제당산업의 기원과 발전

하와이의 최대산업인 제당생산업은 1802년 중국인이 하와이 근처 라나이섬에서 매우 원시적인 방법으로 제당한 것에 기원을 두고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이후 1835년 하와이 카우아이섬 코로아에 제당공장이 건설되어 하와이 제당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당시 하와이에서 제당생산매출액은 <표 4>과 같이 1년에 백만 톤 내외였다.

<표 4> 연도별 하와이 제당생산액의 변화<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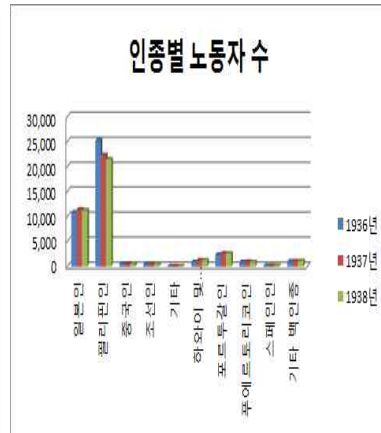
연도	생산액
1934년	952,187톤
1935년	936,909톤
1936년	1,016,371톤
1937년	920,630톤
1938년	917,983톤
1939년	960,329톤



당시 하와이에 존재했던 사탕수수 회사는 대략 18개사, 투자액은 1억7천만 달러로 취업노동자는 4만 명에 달하여 1년간 임금총액은 2,000만 달러였고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주택은 2만 건에 달했다.

<표 5> 하와이 인종별 제당업 경작지의 노동자 수<sup>15)</sup>

인종	1936년	1937년	1938년
일본인	10,832	11,435	11,243
필리핀인	25,239	22,253	21,478
중국인	509	536	517
조선인	457	443	468
기타	47	56	49
하와이 및 혼혈하와이인	896	1,209	1,223
포르투갈인	2,371	2,622	2,573
푸에르토리코인	836	916	905
스페인인	94	106	108
기타 백인종	986	1,050	1,102
합계	42,267	4,626	39,766



일본인 사탕수수업자들은 독립재배에서부터 소작업자, 하청업자, 숙련노동자로 나누어졌다. 메이지 원년인 1868년 최초 일본인 노동자 153명이 도항하여, 1885년 이후 계속해서 하와이로 도항하게 됨에 따라 이후 약 30년간 일본인 노동자들이 하와이의 사탕수수경작지와 노동계를 대부분 지배하게 되었다. 당시 인종별 경작지노동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표 5>과 같다.

1938년을 기준으로 하와이에서 인종별 제당업계의 경작지의 노동자 수를 살펴보면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인들이 가장 많고 다음은 필리핀인, 중국인, 조

14) 앞의 책(1943), p.306 참조.

15) 앞의 책(1943), p.307참조.

선인 순으로 대부분 일본인과 필리핀인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 2) 파인애플과 커피 재배산업의 기원과 성장

하와이에서 파인애플 재배의 기원은 1813년 스페인인 돈 프란시스코 파우라 마린에 의해 처음으로 이식되면서 시작되었다. 파인애플산업 발전의 공로자는 하와이 파인애플회사의 창립자인 제임스 디 도르이었다. 1935년 하와이의 파인애플 수출액은 3,419만 달러, 1936년에는 5,181만 달러였다. 파인애플재배산업의 소작업자 및 취업자는 대부분 일본인으로 1913년부터 일본인간의 파인애플 기업열풍이 고조되어 한 때 오아프섬에만 자금 70만 달러, 재배면적이 5천ha에 달하여 백인을 압도하였지만 파인애플 생산과잉으로 일본인업자의 도산자가 속출하기도 하였다.

하와이에서 커피재배 산업은 1817년 스페인인 톱파우로마린이 카우아이섬 하나레이에 심은 것이 기원이었다. 커피재배산지는 하와이섬 코나 및 하마쿠아 지방에 제한되었으며 해발 1500~2500피트의 산중턱으로 커피재배자는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하와이산 커피는 보통 ‘코나 커피’로 유명해졌으며 향기가 진하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들이 하와이에서 커피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887년 중반 경으로 이미 50년이 되었지만 일본인 커피 소작업자 대부분이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커피산업의 확대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하와이에서 농업이 행해진 것은 1857년경으로 1863년 처음으로 해외수출이 이루어졌다. 하와이에서 생산되는 쌀은 일본종, 하와이종, 중국종으로 생산량은 미미했으며 대부분 본토 캘리포니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다. 처음 농업 노동자의 선구자는 중국인이었지만 1905년 구마모토 현 출신 후쿠나가 토라기치(福永寅吉)가 하와이에 일본종을 들여온 이후 점차 일본인들이 농업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기타 하와이에서 농업은 야채 및 과일재배, 아주까리, 화원업, 목축업, 우유생산, 양계, 양돈업 등이었으며 대부분 일본인들이었다. 또한 사탕수수, 커피, 파인애플 등의 재배에서도 일본인 소작농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와이의 수산업은 연간 50만 달러 내외로 일본인의 독점사업이었다. 어업회사는 태평양어업(자본금 4만 달러), 하와이 수산(5만 달러), 호놀룰루 어업(3만 달러), 히로수산(3만 9천 달러), 하와이 어업(7천 5백 달러), 아이란다 어업(2만 달러) 등 6개 회사로 종사업자는 1,009명, 1년간 어획량은 1,430만 파운드, 가격은 121만 달러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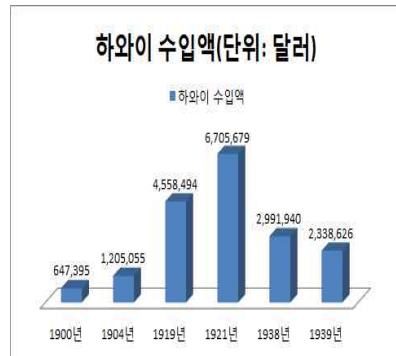
하와이 일본인들은 맥주, 일본 정종(오사케) 및 장류 등 3종의 양조업에서 특히 일본 정종(오사케)과 장류는 독점사업 중의 하나였다. 일본 정종(오사케)은 미국의 금주법 해제 이후 1934년 12월 호놀룰루 주조제빙주식회사가 양조를 재개하면서 후지주조주식회사, 미일주조주식회사, 히로주조주식회사, 마우이주양조주식회사 등이 양조를 개시하여 하와이 전 지역 및 미국대륙까지 진출하였다. 당시 하와이 식량생산액도 전체 소요량의 30%정도로 생산량의 대부분은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 3) 일본인 상점 등장과 무역거래

1885년 관악이민의 개시로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정기적인 도항을 개시하자 그들이 현지에서 소비하는 일본상품의 하와이로의 수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처음 하와이에서 일본상품 판매를 개시한 것은 경작관계의 상점으로 중국인이었는데 나중에 수요에 따라 일본인 상점이 등장하게 되었다.

<표 6> 일본상품 하와이 수입액(단위: 달러)<sup>16)</sup>

연도	주요 기록 내용	하와이 수입액
1900년	초기 약진기	647,395
1904년	최초 100만 달러 돌파	1,205,055
1919년	최초 400만 달러 돌파	4,558,494
1921년	일본-하와이무역 최고 기록	6,705,679
1938년	수입액	2,991,940
1939년	수입액	2,338,626



당시 하와이에서 일본상품의 수입과 판매는 대부분 한 사람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호놀룰루에 처음으로 상점이 등장한 이후 수년간은 경작지를 돌아다니는 행상이 유일했다. 일본인 행상 중 오자키 산나나(尾崎三七)는 이민 초기 행상의 한 사람으로 1892년 하와이에서 정식으로 개점하기까지 경작지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다. 1892년 전후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료잡화, 수입상, 정미소, 약종 및 서적을 판매하는 상점이 등장했다. 1858년경에는 18살 무렵 하와이로 도항한 치바 현 스즈키 쿠니조(鈴木國藏)가 ‘원년자’보다 먼저 1886년 10월 하와이 히로시에 상점을 개업하여 과일과 식료잡화로 대성공을

16) 앞의 책(1943), p.313참고로 작성.

거두어 재산가가 되었고 일본인 공동체가 하와이에 세운 신사에 석등을 봉헌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초기 일본과 하와이 간의 무역은 매우 저조했지만 1904년에 접어들면서 하와이에 일본상품 수입은 100만 달러에 달하여 1921년에는 6,705,000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40년 이후에는 태평양전쟁의 영향으로 100만 달러 이하로 감소하였다. 반대로 하와이에서 일본으로의 수입액의 최고는 1918년에 626,624달러였지만 점차 감소하여 1940년경에는 약 40,000달러 정도였다.

하와이 일본인 거주지에서의 일본은행은 요코하마쇼킨(横浜正金)은행 하와이 지점, 하와이수미코모은행 및 태평양은행 등 3개 은행으로 앞의 두 은행은 일본에 본점을 두고 예금업무를 수행했지만 태평양은행은 일본인이주자에 의한 출자경영을 하는 지방은행으로 지방금융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1940년 당시 3개 은행의 은행예금 총액은 1,200만 달러로 일본인 이주자들은 이외에도 미국인이 경영하는 은행에 약 600만 달러를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합계는 총 1,800만 달러에 달했다.

또한 당시 하와이 거주 일본인의 재산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동산, 부동산, 기타를 포함하여 대동아전쟁 전까지 총액은 약 3억 엔이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하와이로의 수출무역액은 1년간 약 300만 달러로 일본 엔으로 환산하여 약 1,300만 엔 정도였다.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수입상품의 주요 고객은 일본인 이주자들이 약 70%정도를 소비하였으며 나머지 약 30%정도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기타 외국인들이 소비하였다. 당시 일본의 주요 경제정책은 수출무역을 중시한 시기로 하와이거주 일본인들은 해외에서의 일본경제정책의 실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4) 일본계 금융기관의 발달

일본인 관약이민자의 적립금 취급을 위해 1892년 요코하마쇼킨(横浜正金)은행이 하와이에 출장소를 개설한 것이 일본은행 하와이 진출의 최초였다. 1897년에는 이민회사가 경영하는 요코하마은행 지점이 하와이 킹스트리트에 개설되어 노동자의 적립금, 예금 및 모국고향 송금을 취급했지만 영업상의 착취행포의 경향이 드러나 거주민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은행은 1905년에는 우에노은행으로 개칭하였지만 결국 1906년에 철수하였다. 1901년에는 하와이 히로시에 잠사은행(蠶絲)이 개설되었지만 폐쇄되었다. 1909년에는 지방은행인 일본인 은행이 창립되어 영업을 했지만 1915년에 해산되었다. 1913년에는 두 번째의 지방은행인 태평양은행이 킹스트리트에 개설되어 1921년에는 일본아사노화야은행(日本淺野隱夜銀行)으로 개칭했지만 1925년에 합병되면서 다시 태평

양은행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와이 스미토모은행(住友銀行)이 1916년, 기타 파파이코우 금융주식회사 1915년에 창립되었고, 상업신용조합은 1921년에 개설되었지만 곧바로 폐쇄되었으며 저축회사들이 1921년에는 속속 등장하였다. 1940년 당시 요코하마쇼킨은행 하와이지점, 하와이 스미토모은행, 태평양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이 존재했으며 한국의 계와 같은 민간상호금융기관으로는 ‘타노모시코우(頼母子講)’가 있었다. 이들 일본인 3개 은행의 당시 예금은 태평양은행이 약 280만 달러, 스미토모은행이 약 619만 달러, 쇼킨(正金)은행이 약 312만 달러로 총 약 1,180만 달러에 달했다.

## IV. 일본인의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과 현지 정착

### 1. 언론, 종교, 교육기관의 설립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이 하와이 오아프섬과 진주만의 미군기지 기습공격을 계기로 하와이의 정치경제 및 사회조직도 급변하였다. 당시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은 약 1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인 공동체가 당시 이렇게까지 급성장하게 된 계기는 메이지유신 이후 꾸준히 하와이 개척에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인들이 하와이로 집단이주를 시작하기가 1868년 메이지 원년으로 153명의 일본인들이 태평양을 도항한지 이미 7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1884년에는 일본과 하와이 국왕과의 도항조약에 준거하여 정기적으로 이주하는 관약이민이 시작되었다. 하와이 왕조가 몰락하고 미국으로의 하와이 합병이 성립된 이후 하와이가 완전히 미국의 일부가 된 것은 1898년경이다. 하와이가 미국의 영토로 바뀌었지만 일본이민자들은 계속해서 도항했다. 1924년 7월 1일 배일이민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때까지 일본인의 하와이 이민은 계속되었다.

#### 1) 일본계 언론기관의 등장

하와이에서는 1885년 관약이민에 의한 하와이 도항이 개시된 지 8년 후인 1892년에 처음으로 일본어신문이 등장했다. 이후 하와이 일본인 공동체에서 일본어 신문과 잡지가 등장하거나 사라지기를 거듭 반복되었다. 최초 하와이 일

본어신문은 1892년 6월에 창간된 ‘일본주보’였다. 초기 등사판 인쇄의 초라한 것이었지만 최초 하와이에서 발행된 일본어신문이었다. 1892년 9월에는 ‘야마토 잡지’, 1893년에는 ‘하와이 신문’, 1893년 7월에는 ‘아로하’라는 주간신문들이 차례로 발행되었다.

일본어 격일발행 신문은 1893년 등장한 ‘하와이신문’과 ‘아로하’, ‘제21세기’ 등이었다. 이들 신문은 주로 학교거리에서 발행된 신문들로 석판인쇄의 대형신문이었으며 당시 캘리포니아주 상항에 거주하는 상당한 독자를 확보하였다. 등사인쇄로부터 석판으로 발전된 일본어신문은 활자인쇄로 거듭 진보하여 1894년 9월에는 최초의 활자신문 ‘하와이신보’가 탄생했다. 하와이신보는 최초 일간지 성격인 일본어신문이었다. 1941년 대동아전쟁 돌발 전까지 발행된 신문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일본-하와이시사’로 전신인 ‘야마토신문’이 1895년 10월에 창간되어 1906년 11월에 명칭이 바뀐 것이었다. 또한 ‘하와이호치(布哇報知)’는 1912년 마우나케아 거리에서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밖에 오래된 신문으로는 주 2회 발행된 ‘코나반향(나중에 갱생의 하와이)’으로 1897년 2월에 창간되었다.

일본어신문에 영문란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894년 창간된 하와이신보로 상당히 세련된 형태로 등장한 것은 1919년 호텔거리에 있었던 일본-하와이시사에 개설된 영문란이었다. 이 신문은 독자적인 스포츠란을 개설하였으며 1921년에 일본어신문에 개설하였고 1922년에는 영문란에도 스포츠란을 할애하였다. 이후 영문란과 스포츠란은 계속해서 하와이호치에 개설되어 1930년경에는 마우이(馬哇)레코드도 영문란 및 필리핀문란을 개설하였고 하와이매일, 가와이(加哇)신보, 잡지실업 하와이 및 일본 동포 등도 영문란을 채택하였다.

일본어신문은 처음에는 일본대리인으로부터 전보를 통해 받은 일본 중대뉴스를 속보로 전달했지만 1926년에는 일본의 해외방송전보가 개시되어 자가 수신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일본뉴스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문화에 대한 접근이 전보다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

하와이에서 일본어신문발행은 지역적으로 호놀룰루, 히로, 와이루크, 코나, 리페, 와이파후의 순으로 진행되어 수도 호놀룰루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호놀룰루에 최초 등사판의 주간신문이 출현한 이후 1942년까지 50여년이 경과되면서 석판, 활자로 진보하여 활자도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뀌면서 자유롭게 활자를 주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인쇄기계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다. 사진기술 및 제판술의 진보, 편집기술의 발달, 무선접수기의 설치 등으로 하와이의 일본어신문은 점차 내실화를 통해 하와이 일본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 일본어 신문이나 잡지들은 1941년 12월 대동아전쟁 이후 적산으로서 통제되어 미국정부의 선전홍보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일본어 잡지의 발달은 신문에 비하여 상당히 늦게 출발했지만 신문의 발달 경로와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1897년대 대부분의 일본어 잡지는 종교기관의 잡지였다. 최초 잡지인 기하라(木原) 목사의 7명이 만든 ‘생명’은 1897년 창간된 기독교계 잡지로 오쿠무라의 ‘히카리(光)’은 1900년, 다타나 목사의 ‘마우이 잡지’는 1901년, 정토종 개교사 이마무라(今村)의 ‘동포’는 1901년 등과 같이 대부분 일본 종교기관의 잡지에서 출발하였다. 예외적으로 1897년 창간된 월간잡지 ‘고도(孤島)’는 종교와 관계없는 보통잡지가 원조였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하와이 초기 이민시대 신기원을 이룩한 잡지는 1903년 히로에서 창간된 ‘낙월’이었다. 이것은 최초 활자로 된 일본어 월간지였다.

1941년 대동아전쟁 전까지 발행된 ‘상업시보’는 1911년 7월 일본인상업회의소에서 발간하였고, ‘실업 하와이(주간지)’는 1912년에 창간되었다. 1914년 일본-하와이시사사 창간의 ‘하와이 가정잡지’는 부인과 자녀를 대조하였고 ‘낙월’(1915), ‘교우점’(1915), ‘양도’(1916), ‘태평양’(1916), ‘산하와이’(1918) 등에 의해 대중적인 성격의 잡지들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졌다. 1926년경에는 대부분의 잡지들이 도태하기 시작하였고 생존한 잡지들은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져 갔다. 문예잡지도 1912년 이후 몇 종류가 창간되었지만 3-4호정도 발간된 후 사라졌고 운동과 연극예술전문잡지인 ‘하와이운동계(1927)’가 탄생했지만 1년 반 만에 폐간되었다.

1941년 10월 당시 생존한 신문으로는 ‘일본-하와이시사’와 ‘하와이 호치’로 석간 총 10페이지 중 4페이지가 영문이었다. 일간지는 ‘하와이 매일’과 ‘화산’뿐이었으며 기타 1주 2회 발행의 ‘마가이신문’, ‘마가이레코드’, 1주 1회 발행의 ‘가하이신보’, ‘양원시보’, ‘신시대’ 등 3종으로 총 12개 신문잡지들이 존재했다. 일본어 잡지는 ‘동포’와 ‘상업시보’ 등 함께 4종류이었지만 종교단체, 청년회 등 기관 잡지를 포함하면 15종정도가 잔존했다.

## 2) 종교기관과 교육기관의 건립

당시 하와이 거주 일본인의 종교는 불교, 신도, 기독교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불교 각파의 신자가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신도와 기독교의 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는 정토종, 진언, 일련, 천대 기타 각파 합계 14종의 사원이나 포교소가 각지에 산재하여 그 수는 본파 혼간지 46개를 필두로 진언종 34개, 정토종 16개, 동본간지 8개, 일련종 4개, 기타 총 125개

정도에 달했다.

일본신도는 각파 15종, 39개의 신사분사 및 단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독교는 조합, 감리교, 성공회, 홀리니스, 세븐스데이 어드벤처스트, 천주성공회, 구세군 및 몰몬교의 각파 8종으로 42개 교회당이 전도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교회 20개, 감리교회 13개, 성공회 2개, 세븐스데이 어드벤처스트1개, 구세군 일본인 소대 4개, 홀리니스 교회 2개소 등이었다.

하와이 거주 일본인의 종교는 불교, 신도, 기독교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지만 이 가운데 불교 각파의 신자가 대부분으로 전체의 약 60%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신도 각파 및 기독교신자가 서로 절반씩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미국식 교육을 주로 받았던 일본인 2세들도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일본인의 가정교육과 일본어학교의 교육문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어 교육기관은 하와이거주 일본인 후계자양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일본인 2세의 미국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어학교의 존재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었고 차별운동이 일어났다.

1938년 하와이교육회는 하와이 일본어학교통칙을 제정하여 방침의 공정타당성을 선포하였다. 교육회 통칙의 제1조에 따르면 “일본어학교는 아동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또한 가정을 대신하여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일본어학교가 아동들에게 일본어를 전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당시 “일본어학교는 일본에 대한 충군애국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미국사회의 비판에 대한 해석적 조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하와이 일본어학교는 소극적인 방침에서 어쩔 수 없이 단지 일본어만을 가르치고 가정교육의 보조기관 행세를 했지만 하와이 일본공동체에서의 존재감은 상당했다.

최초로 하와이 일본어학교가 1892년 개교된 이래 미국 중심의 교육목적이 확립되기까지의 50년 동안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기본적으로 일본인 2세를 선량한 미국시민으로 양성한다는 대동아전쟁돌발 전까지의 교육방침에 따라 일본어교재와 교수법도 미국화의 길을 걸었으며 1940년 이후에는 매일 미국국기 게양식을 거행하였다.

하와이의 일본어학교는 1941년 태평양전쟁 전까지 194개교에 달했으며 통학 아동 수는 약 43,000명, 직원 약 600명, 수업시간은 매일 영어학교 방과 후 1시간, 1주에 6시간, 일본어로 일본인 2세 이하를 교육했지만 태평양전쟁 돌발 후에는 하와이에 군정이 통치하게 됨에 따라 일본인의 사원, 신사 및 일본어학교는 강제적으로 폐쇄되었다.

## 2. 일본인의 정계 진출과 모국공헌

### 1) 정계진출

일본인 2세들은 1941년까지 하와이의 정치계에서도 큰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1938년 하와이선거에서 일본인들이 등록한 유권자의 수는 남성이 14,896명, 여성이 8,908명, 합계 23,777명으로 하와이 전체의 등록자 83,312명에 대하여 약 28.5%에 해당되었다. 또한 일본인2세 유권자의 등록이 증가하여 1942년까지 일계인의 선거권소유자는 약 36,000명에 달해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본계시민의 증가와 더불어 미국 배일자 연맹은 일계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단적 투표를 하게 되면 하와이의 정치는 멀지 않아 일본인들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인들의 정계진출은 1930년 선거에서 일계인이 처음으로 하와이 하원에 당선되면서 1940년 선거까지 약 10년 간 상원의원 1명, 하원의원 20명, 시군참사 24명, 합계 45명의 의원이 탄생하였다. 하와이 관료에서 일본인 2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호놀룰루 시군주석검사 1명, 판사 3명 등이었다. 이들은 일본어 학교와 중등부를 졸업한 이들로 일본어와 영어에 능통했으며 이후 호놀룰루 경찰서부과장, 현 정부 및 시군정부 과장, 지방우편국장, 세관사, 수세국장, 이민국사 등에도 일본인들이 대거 진출하였다.

일본인 2세들의 교육계 진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대학 강사, 중등학교 교사, 중등학교장, 공립학교교원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일본인의 법조계, 의사, 건축, 자동차에 관한 우수한 기술자분야 등에 진출하는 일계인도 증가하였다. 한편 미국정부의 일본인에 대한 외국인지문등록법의 실시, 일본인의 감시, 육해군의 증강, 군사시설의 강화, 소집령의 발령, 재향군인단의 일본어학교 차별과 배척, 일계인후보자의 일본국적 이탈의 사실조사 등이 병행되어 일본인공동체가 크게 요동치는 시기였다.

### 2) 공동체 조직 및 모국공헌

1941년 당시까지 하와이에서 16만 명의 일본인들을 통합하여 연락하는 통일된 단체나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놀룰루를 중심으로 각지의 일본인 주요 단체와 필요에 따라 연락하는 일본연합회 등 하와이 각지에서 일본인 대표단체가 출현하였으며 그들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였다.

1868년 일본인 노동자가 하와이로 도향한 이래 이미 70여년이 흐르는 시점에서 다양한 일본인단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일본인 중심의 조직적인 형태

를 가진 최초의 단체는 1888년 미야마 간이치(美山貫一) 목사가 제창하여 탄생한 ‘공제회’였다. 이것은 교회구성원의 구제기관으로 1892년에 규모를 확장하고 1899년 일본인 ‘자선회’로 개칭하여 1941년까지 일본인 중심의 사회사업을 수행하였다.

1892년에는 최초의 직업단체인 ‘여관조합’이 조직되었고 1893년에는 최초의 ‘상업조합’이 탄생하였다. 1896년에는 일본인의사회와 청년회도 창립되었다. 1899년 11월에는 하와이 각 지방의 유지들이 모여 코나일본인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나중에 코나일본인회로 개칭하여 일본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일본인 대표기관의 역사를 살펴보면 호놀룰루에서 1901년 7월에 발생한 아메리카 마루사건 탄핵을 동기로 결성된 하와이 일본인회가 효시였다. 1903년에는 중앙일본인회가 조직되었다. 중앙일본인회는 대규모 광범위한 조직이었지만 당시 노동자를 착취한 이민회사의 편을 들어 일본인 공동체의 요청으로 1905년에 만들어진 혁신동지회의 공격을 받아 자연 소멸되었다. 이후 혁신동지회는 이민회사 및 게이헌은행의 구축, 총영사의 경질 수행, 일본인 복지증진 등 일본인 공동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표단체가 되었다. 1914년 1월에는 일본과 미국인 유지들이 하와이미일협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주요단체들을 살펴보면 호놀룰루 일본인연합협회, 호놀룰루 일본인상공회의소, 일본인 자선회, 하와이 교육회, 하와이 일본인공민협회, 히로일본인상공회의소, 히로일본인회 등이었다.

다음은 하와이에서 성장 발전하게 된 일본인 단체의 모국공헌과 기여에 대하여 살펴보자. 일본인들의 모국에 대한 공헌은 직접적 간접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었다. 직접적으로는 각종 헌금, 일본국채매입 등이었고 간접적으로는 모국 일본으로 송금, 모국예금, 해외수출증진, 해외발전 실행, 일본을 위한 민간 외교역할 등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당시 하와이 거주 일본인들 중에는 병역관계가 있는 자들이 급히 조선으로 귀국하여 출병하였으며 하와이 잔류일본인들은 위문헌금을 적십자에 기부하거나 국채에 응모한 액수가 약 100만 엔에 달하기도 하였다. 당시 하와이 일본인들의 모국송금 추정금액은 1884년 이후 송금 2억 6천150만 엔, 휴대자금 1억 1080만 엔, 일본예금 6천만 엔 등 총 4억 4,230만 엔에 달했다.

## 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19세기 말 일본인의 하와이 현지이주나 정착과정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공동체의 형성과 틈새산업으로서 에스닉 산업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일본인들의 해외이주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하와이 현지정착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일본인의 하와이 이주는 현재의 시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일정부분 공헌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인의 해외이주는 메이지시대 초기부터 시작되어 정부와 관주도로 전개되면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하와이사회로 확대 전개되었다. 일본인들이 하와이에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적응하고 현지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지적응 과정에서 일본이민자들이 그들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인적자본이나 경제자본(에스닉 산업의 전개)을 적절하게 동원하고 현지정착과정에서는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회적 자본(네트워크)과 문화자본(가치관)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집단적 성향을 이주지의 현지정착과정에서도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의 하와이 이주초기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일본의 농촌출신 노동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하와이에서 일본인 1세들이 주로 종사하던 직업은 사탕수수농장, 파인애플농장, 커피재배업, 어업, 상업, 농업, 자동차, 토목건축 관련, 화훼, 농원, 교육, 종교 관련 사업 등이었다. 이들 중 어업과 농업 및 화훼는 하와이에서 거의 대부분 일본인들의 독점사업이 되었다. 하와이의 일본인들은 자신들 특유의 농촌 출신이라는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이주를 실행하였으며 사탕수수와 파인애플산업 등에서 에스닉 산업을 전개하여 이주사회의 민족자산으로서 경제자본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둘째, 하와이 일본인들은 1세들의 경제자본을 바탕으로 점차 일반 노동자보다는 지식사업과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일본인 1세들의 성공으로 2세들에게 주어진 교육 및 일본인 공동체의 형성과 문화자본의 혜택으로 일본인 공동체의 성장에 따른 결과였다. 이들은 하와이에서 점차 노동자에서 각종 회사, 상사 근무 등 샐러리맨, 그리고 상업이나 자동차관련 자영업자, 교직원 및 관공서, 정계로 진출하여 모국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이상과 같이 하와이 초기 일본인 공동체는 노동자, 지식층, 상층 등 3개 계

층으로 구분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적, 환경, 교육, 사상 등에 있어서 몇 가지 상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와이 초기 이민시대 일본인 1세대들은 인적자본과 경제자본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커피농장과 파인애플 등 농업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들은 일제인 2세의 정착성공을 위한 상담상대가 되거나 후견인으로서 협력하는 일본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초기 하와이 일본인 공동체 발전의 추동력은 일부 지도층에 있었지만 여러 방면의 일본인 지식층, 이민선배, 관리자 등의 힘이 컸다. 또한 하와이 일본인 공동체는 공공, 언론, 실업, 교육, 종교 등 각계각층에서 유력자들과 단체들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일본인 공동체 확대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세기 초 하와이정부에 의해 실시된 일본인 대상 외국인등록법 실시, 일본어학교폐쇄, 1907년 배일이민법 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정부의 소수민족 정책 적용대상으로서 재일코리아 정책과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또한 20세기 초 일본인들이 하와이에서 차별받던 당시의 상황이 글로벌시대 현재 일본에서 소수민족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헤이크크라임(차별범죄)과 헤이트스피치(차별선동)와 같은 외국인 배외사상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参考文献】

- 김태영(2013) 「에스닉 마이너리티의 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기업정신에 관한 실증적 연구」 『日本文化學報』 第27권.
- 김태영(2005)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특성과 기업가 정신」 『日本文化學報』 第56권.
- 임영언(2006) 『재일코리안 기업가: 창업방법과 민족네트워크』 한국학술정보.
- 임영언(2010) 「일계인(日系人)디아스포라: 초민족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日本文化學報』 第46권.
- 임영언(2011) 「일계인(日系人)디아스포라 브라질 이주사와 전시 문화콘텐츠 고찰」 『日本文化學報』 第50輯.
- 임영언·김재기(2011) 「일계인(日系人)디아스포라의 귀환과 브라질타운형성에 관한 연구: 군마 현 오이즈미마치 일계브라질타운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6권 제4호.
- 송석원(2009) 「일본정부의 일계인(日系人)정책-JICA의 해외일계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
- 장지혜·설동훈(2006) 「여성 결혼이민자와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 家仲茂(1943) 『ハワイの歴史と風土』 生活社刊.
- 山下草園 (1943) 『日本人のハワイ』 世界道書店.
- Becker, Gary(1975) “*Human Capital.*”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1976, 게이리·베ッカー著, 佐野陽子譯, 「人的資本」、東洋經濟新報社).
- Coleman, James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595-121.
- Fukuyama, Francis(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Paper Backs Book.
- Granovetter, Mark(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481-510.
- Mincer, Jacob(1993) “*Studies in Human Capital*” Economists of the Twentieth Century.
- Putnam, Robert D.(1995) “Bowling Alone, Revisited,” *The Responsive Community, (Spring):* 18-33.

## 要 旨

本研究の目的は20世紀初行われた日本人のハワイ現地移住適応と定着過程を歴史的な視点から解釋し、隙間産業としてエスニック産業の展開と日本人共同体の形成による現地定着過程を考察することにある。

日本人がハワイに移住してから比較的早いうちに現地に適応できたのは経済共同体の形成のための人的資本(Human Capital)と経済資本(Economic Capital)を的確に動員し、現地定着過程では日本人の社會的資本(Social Capital)と文化資本(Cultural Capital)を有効に活用できたからである。

本論文の研究の結果は次の通りである。

第一に、最初日本人のハワイ移住者は農村出身の労働者が多かったので、このような人的資本に基づいて日本人1世はハワイで自分達の得意な分野である農業の部門のサトウキビとパイナップル産業などでエスニック産業を展開し、移住共同体の民族財産としての経済資本を蓄積して行くことができた。

第二に、ハワイで日本人1世の経済的成功は日本人2世たちに教育熱を高め、社會的資本の構築による強い共同体の形成と成長につながっていた。最初ハワイ日本人移民者のほとんどが労働者から出發しサラリーマン、自営業者、政治家などへ進出し、後で日本の母國にも貢献している。

結果的にハワイ移住日本人の現地定着過程では経済資本と社會資本の構築により日本人の共同体が大きく成長できたのである。しかし、今日アメリカにおける日本人の共同体は教育と文化資本の世代継承の弱化によるアイデンティティ危機にさら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研究の結果は今後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共同体やアイデンティティの在り方を示唆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ハワイ移住日本人、社會資本、日本人共同体、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共同体、エスニック産業、隙間産業、移住共同体、経済資本

투 고 : 2013. 11. 30  
1차 심사 : 2013. 12. 14  
2차 심사 : 2014. 1. 4